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47>

탐·진·치 끊음이 출가

학승이 물었다.
 “근본을 버리지 않고 지엽말단을 쫓지 않는다고 합니단만 정도(正道)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훌륭한 출가승이로군.”
 학승이 말했다.
 “저는 이제껏 무엇이 출가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는 거야.”
 학승이 물었다.
 “벗어나야 할 집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바로 모름지기 출가해야 돼.”
 학승이 물었다.
 “그를 편안하게 보낼 곳이 어디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장차 집에 앉아있어라.”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느 집에 앉아있던지 탐진치 삼독을 끊으면 그곳이 바로 진정한 출가이고, 곧 부처가 있는 곳이다.
 학승이 물었다.
 “눈 밝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본다고 합니단만 도리어 형태[色]도 밝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 따위 것은 두들겨 없애버려.”
 학승이 물었다.
 “어떻게 해야 두들겨 없앨 수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힉쓰지 말라.”
 학승이 물었다.
 “힉쓰지 않고 어떻게 두들겨 없앨 수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만일 힘을 쓴다면 바로 어긋나버리고 말아.”

중한 선서가 됐다.
 혹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7일간, 혹은 3개월간 잠도 안자고 힘을 쓰면서 옹매정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마음이 힘을 쓰면 쓸수록 깨달음은 더 멀어지는 법이다. 입문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쉬는 일이다. 몸은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마음은 꼭 쉬어야 한다. 깨달음에 대한 열망이 강한 사람일수록 즉시 그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 마음이 그 무엇도 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 문득 한 생각이 툭 터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토록 그대가 원했던 깨달음이다.
 학승이 물었다.
 “불조(佛祖)의 큰 뜻은 누구에게 적합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다만 요즘 사람에게 적합할 뿐이야.”
 학승이 물었다.
 “그런데 어찌 인지 못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누구의 잘못이겠는가?”
 학승이 물었다.
 “어떻게 이어받아야 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지금 아무도 이어받을 사람 없어.”
 학승이 말했다.
 “그러면 의지할 것이 없어집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또한 노승도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마음이 힘 쓰면 깨달음은 멀어져 몸은 부지런히 마음은 꼭 쉬어야

問 不棄本不逐末 如何是正道
 師云 大好出家兒
 學云 學人從來不會出家
 師云 歸依佛歸依法
 學云 未審有家可出也無
 師云 直須出家
 學云 向什麼處安排他
 師云 且向家裡坐

問 明眼人見一切 還見色也無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 정도를 추구하는 것은 훌륭한 자세다. 특히 선문(禪門)에서는 지엽말단을 쫓지 않고 근본으로 들어가야 한다. 지엽말단은 선악 시비와 장단(長短)에 집착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현자들은 선(善)을 존중하고 악(惡)을 멀리하러 했다. 이것은 지엽말단을 쫓아가는 것이다. 성인은 선악을 다 버리라고 말한다. 선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慈)'이기 때문이다. 성인은 근본을 쫓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정도주의자이고, 평화주의자이다.
 출가는 탐진치(貪瞋癡) 삼독을 벗어나는 것이다. 집[家]은 탐진치 삼독의 표상이다. 부모를 모시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다 보면 탐진치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래서 출가하는 것이다. 출가자는 철저히 부처님께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야 한다. 그리고 들끓는 마음을 잠재워야 한다.
 조주 스님은 출가하라 해놓고 나중에는 되레 “그 집에 앉아있으라” 했다. 도대체 선사의 뜻이 무엇인가? 선사는 지엽말단을 쫓지 않고 근본을 붙잡는다. 사람이 출가하고서도 여전히 세속적 명예와 재물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불타는 이쪽 집을 버리고 화약이 가득한 저쪽 집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출가는 집을 벗어나는 것이

師云 打卻著
 學云 如何打得
 師云 莫用力
 學云 不用力如何打得
 師云 若用力即乖

진리에 눈뜬 사람은 일체 모든 것에 변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다르고 그의 영혼이 달라지므로 행동도 다르고 말도 다르다. 이렇게 되는 것은 겉대기를 육안으로 보지 않고 심안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리에 눈뜨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훌륭한 선지식을 정해 수년 동안 법문을 듣다 보면, 어느 날 저절로 눈이 밝아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중국의 배후이다. 배후는 최종 10년간 재상까지 지냈던 사람이고 평생 수십 권의 불서를 지었다. 배후는 여러 선사를 찾아가서 법을 들었는데 그중에는 목조선의 대가 광지 스님도 찾아가서 법을 들었다. 나중에는 황벽 스님을 가장 존경했고, 수년을 다니면서 들었던 것을 기록해 <전심법요>와 <완능록> 2권을 지어서 제가 불자로서 선서를 남겼는데 오늘날 귀

問 祖佛大意爲什麼人
 師云 只爲今時
 學云 爭奈不得何
 師云 誰之過
 學云 如何承當
 師云 如今無人承當得
 學云 如麼即無依倚也
 師云 又不可無卻老僧

불조의 뜻은 이어받는 것이 아니다. 이어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모두 다 사기꾼이다. 도대체 무엇을 이어받았다고 헛소리를 해대고 있는 것인가? 금시(今時)에 불조의 뜻을 이어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 그대는 원래부터 부처이다. 부처는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다.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다. 중국에는 조주 스님도, 스승도 다 물리치고 하늘 아래 홀로 우뚝 서서 세상을 향해 포효하는 것이다. 불조는 그것을 원한다. 요즘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㉔ 조당집(祖堂集)

세계 최고 선종사서

<最古>

<조당집> 20권은 선종의 사서 가운데 하나로서 초기선종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오대의 남당 보대 10년(952)에 초경사(昭慶寺)에 주석하고 있던 정수선사(淨修禪師) 문등(文燈)의 문하였던 정(靜)과 균(均) 두 선사가 편집하고, 여기에 문등의 서문이 붙은 모습으로 성립됐다. 정(靜)과 균(均)은 함께 설봉의존 - 보복종전 - 정수문등의 법계를 계승한 인물이다.

기존의 현재의 <능가불인법지> - 두비의 <전범보기> - 정각의 <능가사지기>로 계승되는 일련의 북중정통을 주장하던 전등사서에 비해, <조당집>은 801년에 성립된 지기의 <보림전(寶林傳)> 10권을 계승해 과거칠불로부터 시작해 서전의 28대 및 동도의 6대를 거쳐 청원행사 이하 제8대 곧 설봉의존의 손제자, 그리고 남회화양 이하 제7대 곧 일제의 현의 손제자에 이르기까지 257명의 전등법맥(傳燈法脈) 및 그 기연어구(機緣語句)를 수록하고 있다.

<조당집>은 일찍이 남북 양종의 정통문제를 남종의 정통으로 해결하고 그 계보를 서전 28대조사 및 동도 6대조사로서 선종의 삼삼조사(卅三祖師)를 확정된 것으로 801년 성립된 <보림전>을 계승하고, 이후 1004년 성립된 도원의 <경덕전등록>으로 전승되는 전등사서의 근거가 됐다. <조당집>은 이후 <전법정종기> <속전등록> <전삼관등록> <가대보등록> <연등회요> <오등회원> 등 전등사서의 모범이 됐다.

<조당집>의 성격은 사전(史傳)보다는 수록된 선자의 법요(法要)를 집대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서는 오대에 성립됐지만 중국에서는 비교적 일찍이 그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다만 명교대사 설승(1007~1072)의 <협주보교편>에 <조당집>이라는 명칭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1세기 말엽까지는 중국에서 유통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고려시대 고종 32년(1245)에 판각됐던 <고려대장경> 보유편에 수록됐던 판본이 20세기에 와서 새롭게 발견됐다. 그 중간에 전혀 주목되지 못한 까닭인지 <조당집>의 이본은 보이지 않는다. 오늘날 유통본으로는 영인본 <고려대장경> 제45권에 수록돼 전한다. 이후 일본의 야나기다 세이잔 교수에 의해 오랜 연구 끝에 학계의 주목을 끌었다. <조당집>에 수록된 선자들 가운데는 선종오가 가운데서도 임제종 및 위양종과 관련된 기록이 돋보인다.

<조당집>은 제1권에는 과거칠불로부터 인도의 제16조 라후라까지, 제2권에는 제17조 승가난제로부터 동도의 조계혜능 및 총지비구까지, 제3권에는 혜음

선사로부터 남회화양까지, 제4권에는 석두희천으로부터 약산유엄까지, 제5권에는 태전 화상으로부터 덕산선감까지, 제6권에는 투자대동으로부터 석상경제까지, 제7권에는 협산선회로부터 설봉의존까지, 제8권에는 운거도응으로부터 삼랑화상까지, 제9권에는 낙포원안으로부터 나산 화상까지, 제10권에는 현사사비로부터 장경혜능까지, 제11권에는 보복종전으로부터 녹문까지, 제12권에는 조산하옥으로부터 선종 화상까지, 제13권에는 초경도광으로부터 산곡 화상까지, 제14권에는 마조도일로부터 장경회회까지, 제15권에는 서당지장으로부터 방은 거사까지, 제16권에는 남전보원으로부터 석상성공까지, 제17권에는 대지환중으로부터 신라의 쌍봉도윤까지, 제18권에는 조주종심으로부터 양산해적까지, 제19권에는 향엄지향으로부터 미령 화상까지 포함 257명 대한 기록이다.

<조당집> 제17권 및 제18권에는 특히 당나라에 유학했던 신라의 유학승들에 대한 기록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나말여초 선자들의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요오순지(了悟順之: 807~883)에 대한 법어의 기록은 순지어록으로 불릴만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나말 여초 중국의 조사선법을 수입한 사람들 가운데 중국 선종오가의 위양종통을 수입한 사람으로 오관산 서운사(瑞雲寺)의

요오순지가 있다. 순지화상은 중국 위양종의 양산해적(仰山慧寂) 선사의 법을 이었다. 이로써 중국의 남양혜충 국사로부터 탐원응진 - 양산해적 - 요오순지로 전승되는 96종의 상징과 기호 등으로 선법의 도리를 드러낸 표상현법(表相現法)을 더욱 발전시켜 선법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

그 가운데 순지화상의 표상현법에는 첫째는 사대팔상(四對八相), 둘째는 양대사상(兩大四相), 셋째는 사대오상(四對五相) 등 17가지 형상이 있다. 또한 화엄의 도리에 입각해 증리성불(證理成佛)·행만성불(行滿成佛)·시현성불(示顯成佛) 등 <삼편성불론>이라는 독특한 이론과 실천이 결부된 가르침을 제시했다. 이 <삼편성불론>에 대해 그것을 실제로 증득해 나아가는 방법을 3가지로 제시했는데 이것이 곧 삼증실제설(三證實際說)이다. 삼증실제란 첫째는 문증실제(頓證實際)이고, 둘째는 회점증실제(廻漸證實際)이며, 셋째는 점증실제(漸證實際)이다. 이처럼 순지는 원상(圓相)이라는 나름대로 독특한 방편을 통하여 해도에 선종을 선작한 인물이다.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고려대장경> 제45권에 수록된 <조당집> 인경본 / <고려대장경연구소 자료>

257명의 전등법맥과 어구 수록 <傳燈法脈>

신라 유학승 기록도 실려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교육과목	교육기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량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 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쇼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교육생 상시 모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il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의 : Tel. 02)3147-2020

지부교육원

영남교육원 055-543-3155	울산교육원 052-260-1037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대구교육원 053-566-1116	호남교육원 063-288-5623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부산교육원 051-441-0111	전북익산교육원 063-854-1060	제주교육원 064-755-7588
해운대교육원 051-757-9990	광주교육원 062-672-5432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사) 한국불교 연화조계종 입종안내

본 종단은 문체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제2010-17호)를 받은 정법수호 종단입니다. 종헌 제80조에 의거 사설사함을 창건한 승니 및 신도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과 상속권을 영구히 보존합니다. 제방에 참신한 종도들의 입종을 환영합니다.

입종서류

- 법복 착용한 반명함판 사진 4매
- 주민등록등본 1통
- 법당 내의 사진 각 1매
- 주민등록 앞뒤 복사 1통
- 입종원서(종단양식)

교부서류

입종 완료와 동시에 주지임명장, 사찰등록증, 승려증, 본종 사단법인 등록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행자모집

승려(재가승 포함)가 되고자 하시는 분이나 사암(포교원)을 운영하시려는 분의 교육을 위해 본산에서 행자교육을 실시합니다. (총무원에 문의)

수계득도

본 종단에서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득도, 사미(니), 비구(니) 수계를 미루어 오신 스님들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금강계단을 설단합니다. (총무원에 문의)

입종문의 : 전화 054)231-3101 (총무원) / 팩스 054)292-9301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474번지 구운사
(사)한국불교 연화조계종 총무원장 보월 합장